

마음 열기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언제인가요?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19장 1-10절,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심령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며, 이는 정통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어 자신의 배를 채웠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삭개오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은 많았으나,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요 죄인이라 낙인찍혀 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외롭고 갈급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은 있었으나 그것이 심령에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고, 스스로도 자신의 더럽고 가련한 처지를 미워하며 근심과 괴로움 속에 메말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을 고쳐주셨고, 삭개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나 자신도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아 심령이 철저히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육신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과 괴로움으로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바로 그 때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야 할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돌 무화과나무(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고백은 결단임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속여 취했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진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집에서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맹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고,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3. 무너져 있고 메말라 있는 심령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적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2. 내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3.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FAMILY 나눔

2026년 7월 12일

예수님을 만나는 자

누가복음 19장 1-10절

